

# 고양시



경기도 서북부에 위치한 시. 동북쪽은 안주시, 동남쪽은 서울특별시, 서남쪽은 한강을 경계로 김포시, 북쪽은 파주시와 접한다. 면적은 267.31㎢, 인구는 93만8,784명 (2009년 12월 현재)이다.

## :: 식사동과 공양왕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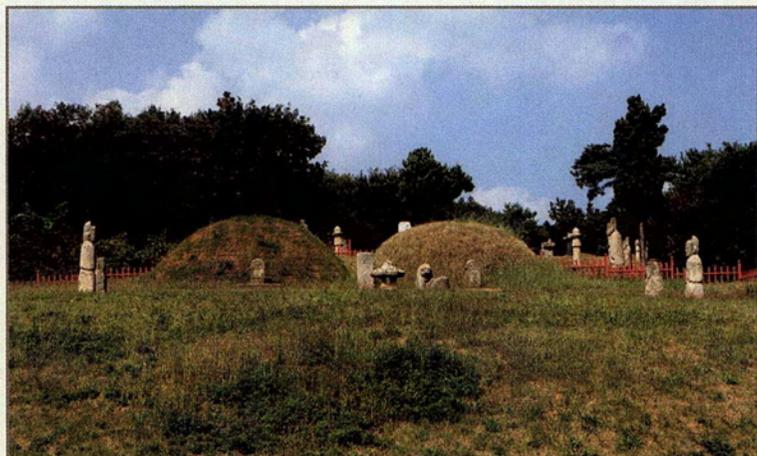
### 공양왕이 만나절 보낸 곳

고려의 마지막 왕 공양왕이 태조 이성계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그의 칼을 피해 쫓겨 다니던 때의 일이다. 공양왕은 개성을 빠져나와 고양 땅으로 도망을 왔다. 이곳에 바로 고려의 명장이며 충신인 최영 장군이 문혔기 때문이었다. 파주를 지나 이곳 고양 땅 식사동에 숨은 공양왕과 왕비, 그리고 왕이 사랑한 삼살개는 며칠을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헤매다가 어두침침한 저녁 무렵에 식사동의 한 절에 머물게 되었다.

그러나 이곳 절에서는 왕을 숨겨주었다가 후일 큰 화를 당할 것을 우려해 부근의 대궐고개에 왕의 일행을 숨겨 주고 매일 끼니때마다 밥을 날라다 주었다. 식사(食寺)동이란 이름은 이렇게 하여 생겨난 것이다.



식사동 애항비 제막식 식사동의 유래와 역사를 소개하고 있다.(2010. 7. 23)



공양왕릉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사적 제191호

그 후 왕의 일행은 추격군의 말발굽을 피해 원당동 왕릉골로 숨어들었다. 왕의 일행은 이곳에서 반나절을 보낸 뒤 은신처 앞 연못에 그만 스스로 몸을 던져 자살하고 말았다.

추격해온 이성계의 군사들은 연못을 향해 짓고 있는 삽살개가 수상하여 연못의 물을 모두 퍼냈다. 공양왕과 왕비의 시신을 발견하고 이곳에 장사를 치러 주니 그때부터 이곳을 일명 '반나절 룡'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 ∴ 고봉산과 한씨 미녀

### 백제의 미녀와 고구려 태자의 사랑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이 서로 대치하던 삼국시대에 일산이 백제의

영토였던 적이 있었다. 일산의 중심에 자리 잡은 고봉산은 매우 중요한 요새 겸 요충지로 고구려는 늘 이곳을 점령하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았다.

당시 이곳에는 한주라는 꽃처럼 아름다운 미녀가 살았는데, 어느 날 백제를 정탐하기 위해 잠입한 고구려의 태자와 사랑에 빠지게 되었다. 청춘남녀는 처음 만남 이후 급속도로 가까워져 헤어질 수 없는 사이가 되었다.

시간이 흘러 백제 땅에서 모든 임무를 마친 고구려 태자는 후일 만날 것을 기약하고는 고구려로 돌아갔다. 고구려로 돌아온 태자가 곧 왕위에 오르니 이가 바로 고구려의 안장왕이다.

한편, 백제 땅에 남은 한주는 그 아름다움이 널리 소문나 백제의 태수로부터 청혼을 받게 된다. 그러나 한주는 이미 장래를 약속한 사람이 있



고봉산 고양시 일산구에서 가장 높은 산이다. 봉화를 올린다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어 승낙 할 수 없다고 거절한다. 장래를 약속한 사람이 누구냐는 태수의 물음에 대답을 못하자 “네가 장래를 약속한 사람을 밝히지 않는 것을 보니 적의 첩자와 내통한 것이 틀림없다”며 한주를 옥에 가두었다.

이 소식을 들은 고구려의 안장왕은 을밀이라는 장수와 용감한 병사 20명을 보내 한주를 구하려고 하였다. 을밀 일행은 신분을 숨기고 백제에 잠입한 후 백제 태수가 생일을 맞아 큰 잔치를 벌일 때 기습하여 태수를 죽이고 한주를 구출하였다.

대군과 함께 국경에 주둔하다가 이 소식을 들은 안장왕은 크게 기뻐하며 한시바빠 한주를 만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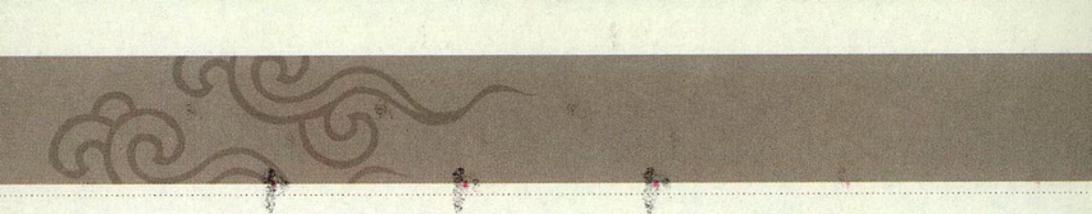
구출된 한주도 빨리 안장왕을 만나고 싶은 마음에 높은 산에 올라 봉화를 밝혔다. 마침내 안장왕과 한주는 감격적인 재회를 하고 혼인을 맺게 되었다.

## ∴ 풍동과 산황동의 부자

### 라이벌 부자들의 재산 겨루기

옛날 도춘천을 사이에 두고 풍동마을 쪽에는 황씨 성을 가진 큰 부자가, 산황동 쪽에는 노씨 성을 가진 큰 부자가 살았다. 이 두 사람은 워낙 부자여서 대부분의 논과 밭이 서로 논둑을 사이에 두고 맞붙을 정도였다. 그런데 두 부자는 만나기만하면 늘 서로 자신이 더 부자라고 다투기 일쑤였다.

그러던 어느 해 비가 많이 내려 도춘천에 놓은 나무다리가 떠내려갔다. 마을 사람들은 산황동의 노씨 부자와 풍동의 황씨 부자를 찾아가



다리를 놓아줄 것을 간청하였다. 자신들의 재력을 마음껏 뽐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 두 부자는 서로 비싸고 좋은 다리를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을 한 후 비싼 다리를 만든 사람이 부자 내기에서 이기는 것으로 하자고 약속하였다.

한 달이 지난 후 도촌천에는 두 개의 다리가 완성되었다. 먼저 황씨는 그 귀하고 비싼 낫쇠를 이용하여 낫다리를 만들었다. 온 동네 사람들은 황씨가 만든 낫쇠 다리를 보고 깜짝 놀랐다. 그런데 노씨가 만든 다리는 닭의 똥집으로 만든 닭똥집 다리였다. 마을 사람들은 두 다리를 본 후 누가 더 부자인지를 판정하기 위해 며칠 동안 고심하게 되었다. 그리고 고심 끝에 마을 사람들은 닭똥집으로 다리를 놓은 노씨가 더 부자라는 판정을 내렸다.

황씨가 그 이유를 묻자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낫쇠다리는 수십 년 동안 고치지 않고 사용해도 되지만 닭똥집다리는 매년 다시 만들어야만 다리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노씨가 더 많은 돈을 쓰는 것이니 더 부자가 아니겠습니까?”